

#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AC512]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b>대부분</b> 을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b>환율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채권 투자위험, 월분배금 지급 중단위험, 월분배금지급에 따른 원본손실위험, 월분배금지급에 따른 과세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b>1. 투자목적</b></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비교지수(벤치마크)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p> <p><b>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p>
	<p><b>2. 투자전략</b></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가운데 A- ~ BBB- 신용등급(S&amp;P, Moody's 기준)의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자는 원-달러간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b></p> <p><b>[주요 투자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이하 "피투자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li> <li>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A- ~ BBB- 신용등급(S&amp;P, Moody's 기준)의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고수익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li> </ul> </div>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9월 30일)

<b>펀드명</b>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b>펀드구조</b>	룩셈부르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가변자본투자회사(SICAV)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b>펀드 최초설정일</b>	2004년 11월 10일
<b>펀드 규모</b>	미화 6.43억 달러 (원화 7,503억 원)
<b>투자목적 및 가이드라인</b>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BBB- 이상 신용등급의 미국 달러화 표시 우량채권 및 기타 채권·채무증권 ("양키본드" 및 "글로벌본드"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함.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글로벌본드는 유럽 채권시장과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채권임. 동 펀드는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해당 증권을 추가 매입할 수는 없음. 또한 매입시 최저신용등급은 BBB- 이상이며, 편입 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적격등급아래로 하락한 채권의 경우 그 비중이 5%를 초과할 수 없음.
<b>비교지수</b>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 100%
<b>펀드 표시통화</b>	미국 달러화 (US Dollar)
<b>집합투자업자</b>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b>하위 집합투자업자</b>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의 자산운용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에 위임
<b>주된 투자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과 상대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이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적 요인을 가미한 운용 전략</li> <li>▪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분석과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내부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적인 시장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포착되는 매력적인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li> <li>▪ 업계경력 평균 11년인 20명 이상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해당 섹터 내의 투자적격등급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회 포착</li> <li>▪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외에 30명 이상의 채권 펀드매니저 및 구조화채권 애널리스트를 통한 추가적인 기회 발굴</li> <li>▪ 펀드매니저, 크레딧 애널리스트, 채권 트레이더의 상호 협력을 통한 종목선정 및 포트폴리오 최종 구성</li> <li>▪ 정교한 퀀트 분석 도구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li> </ul>
<b>담당 운용역</b>	Mark D. Redfea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PPM America 입사</li> <li>- Morgan Stanley Dean Witter, Van Kampen Funds</li> </ul> </li> </ul>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지난 2011년 5월 22일 등록되었으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피피엠 아메리카는 영국 프루덴셜주식회사 (Prudential plc UK) 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 과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2500%	0.90%	1.4%	159	323	493	850	18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8% 이내	0.8500%	0.50%	1.07%	197	317	443	707	1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000%	0.45%	0.96%	113	230	352	610	134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6000%	0.25%	0.68%	142	237	336	546	115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클래스 A형과 클래스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개월, 그리고 클래스 A-E형과 클래스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11.01 ~ 19.10.31	17.11.01 ~ 19.10.31	16.11.01 ~ 19.10.31	14.11.01 ~ 19.10.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2/09/17	10.74	3.57	3.03	3.15	3.58
비교지수(%)		13.98	5.34	4.87	4.34	4.27
수익률 변동성(%)		3.28	3.12	3.19	3.49	3.49

(주1) 현행비교지수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7,512억원	11.04%	3.97%	11.04%	3.89%	14년 10개월

	조은서	81	부책임 (차장)	3개	41억원	-	-	11.04%	3.89%	1년 05개월
<p><b>투자자 유의사항</b></p>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p><b>주요투자 위험</b></p>	<p><b>구 분</b></p> <p><b>환율변동위험</b></p>	<p><b>투자위험의 주요내용</b></p> <p>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대상자산의 표시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펀드에 각종</p>								

		<p>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외화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p>
	<p><b>투자적격등급채권 투자위험</b></p>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는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해당 증권을 추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b>월분배금 지급중단위험</b></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추정 이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유종목의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또는 대량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p>
	<p><b>월분배금지급에 따른 원본손실위험</b></p>	<p>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으로부터 우선분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자신탁 기준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분배금도 반드시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최대 100% 까지 잠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b>월분배금지급에 따른 과세위험</b></p>	<p>동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분배금에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p>
	<p><b>원본손실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b>시장위험</b>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b>매입 방법</b>	<b>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b>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b>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b>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b>환매 방법</b>	<b>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b>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b>환매 수수료</b>	없음			
<b>기준가</b>	<b>산정방법</b>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b>공시장소</b>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s://www.eastspring.com/kr">https://www.eastspring.com/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b>과세</b>	<b>구 분</b>	<b>과세의 주요내용</b>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b>수익자</b>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b>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p>		
<b>전환절차 및 방법</b>	해당사항 없음			
<b>집합투자업자</b>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s://www.eastspring.com/kr">https://www.eastspring.com/kr</a> )			
<b>모집기간</b>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 총액</b>	10조좌	
<b>효력발생일</b>	2019년 11월 15일	<b>존속 기간</b>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s://www.eastspring.com/kr">https://www.eastspring.com/kr</a>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